



참사람 36.5°C

Vol. 45 | 2024년 10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선선한 바람과 함께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0월 참사람 36.5°C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청소년문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 그리고 좀처럼 책과 친해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독서꿀팁을 안내합니다. 이 계절, 책과 함께 특별한 가을 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4

참사람을 말하다

**좋은 청소년문학은
어른이 읽어도 좋은 문학**

오세란

청소년문학 평론가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독서편지

**사랑하는 아با에게
청주미평여자학교 이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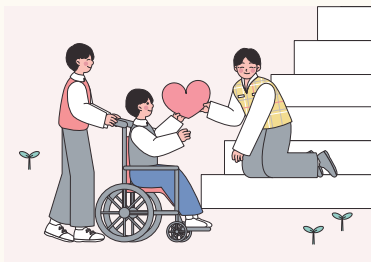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는 어떤 책?**
글 _ 이은주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15

현장 속으로

함양군에서 펼쳐진 ‘공감’과
‘연대’의 이야기
**어렵지 않아요, 모두의 자유,
무장애 세상!**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401호 아저씨의 선행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경식



12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독서가 어려운 그대를 위한,
독서습관 만들기 6단계**



18

재단 소식

마음두드림

2024년 2학기 작품발표회 개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 참여

2024년 광화문글판 가을편

참사람을 말하다



좋은 청소년문학은 어른이 읽어도 좋은 문학



오세란 청소년문학 평론가

충남대학교에서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2007년 계간『창비어린이』 신인평론상에 「역사를 소재로 한 어린이 문학, 새롭게 읽기」가 당선되어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계간『창비어린이』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충남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근대 사회는 이전보다 어른과 어린이를 더욱 뚜렷이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권위와 함께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겼습니다. 1930년대에 발표된 소설가 이태준의 동화 「엄마 마중」은 어른의 역할이 잘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서 주인공인 어린이는 전차정거장으로 엄마를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차에서도, 두 번째 전차에서도 엄마는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차장에게 우리 엄마 안 오냐고 묻자 차장들은 모두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라고 통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어린 아이의 세계는 매우 작아서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엄마를 알 것 같은데, 그러기에 세상은 너무 크고 차갑습니다.

엄마는 세 번째 전차에서도 내리지 않지만 이번 차장은 다릅니다. 우리 엄마 안 오냐고 묻는 아이에게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

록 한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라고 세심하게 말해 줍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이태준은 이 동화를 통해 엄마를 대신해 어린이를 보살피는 이웃 어른이 많아지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면서 잃은 것이 있습니다. 두 세대는 서로를 잘 모르게 되었고 소통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른이 되는 순간 감각의 강을 건넌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에 어른은 통제하고 간섭하는 이로 비치고, 어른은 어린이가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여겨져 자신만의 시간도, 문화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쉬는 시간에 손에 들던 책이 있었지만 그 책들은 단지 ‘읽을거리’로 치부되었고, 청소년문화가 가시화된 1990년대가 되어서야 한국에서도 청소년



년문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소년문학’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중반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문학은 청소년들만 읽는 책일까요?

청소년과 성인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청소년문학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 줍니다. 나아가 성인들도 청소년문학을 읽으며 다채로운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청소년문학이 어른들을 위한 새로운 보물창고 인지 알아보을까요?

첫째. 청소년문학에는 오늘날의 청소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성인과 청소년은 즐기는 문화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청소년과 소통하려고 그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려 보지만 겉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럴 때 청소년의 일상과 속내가 담긴 청소년문학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금이의 청소년 소설 『너를 위한 B컷』은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동영상 편집을 잘 하는 소년 선우입니다. 선우는 4명의 친구들로부터 그들의 일상을 찍은 동영상을 편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우정을 강조하는 멋진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선우는 영상을 편집하며 삭제했던 장면들을 다시 살피게 되고, 편집된 B컷에 이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2010년 전후로 출생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 세계의 원주민입니다. 휴대폰, 태블릿이라는 마술 기계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IT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각종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 등 디지털 공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디지털 공간의 법적,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최근 우리는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잘 못 사용하여 벌어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목격하였습니다.

위의 한 작품만 예로 들어도 청소년문학을 읽으면 청소년의 일상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학 작가들이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한 청소년들이 겪는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문학도 ‘문학’입니다.

한 존재가 세상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고 성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화, 청소년문학, 일반문학은 개별 장르의 특성은 있지만 모두 보편적인 삶을 그리는 서사문학입니다. 따라서 좋은 청소년문학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읽어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림책의 독자가 ‘0세부터 백 세 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문학의 독자는 ‘청소년부터 백 세 까지’입니다.

청소년소설 『유원』에는 타인과의 관계에 미숙한 한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린이나 청소년은 어른에게 공손해야 한다고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착한 청소년은 어른의 부당한 요구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작품에서 주인공 유원은 자신의 은인인 아저씨의 과도한 부탁을 처음에는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다가 용기를 냅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을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청소년독자에게 책을 주려고 샀다가 『유원』을 읽은 어른독자는 유원을 응원하면서 동시



에 관계에 미숙했던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출간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그림책 『안개 숲을 지날 때』는 성장을 안개 숲이라는 공간으로 은유한 판타지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종종 안개 숲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혼자 힘든 길을 걷기 위한 용기는 필요합니다. 청소년문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문학입니다.

셋째. 청소년문학에서는 나, 인간, 사회, 세계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펼쳐집니다.


사회마다 함께 논의해야 할 ‘어젠다’가 있습니다. 가령 돌봄, 장애, 젠더, 포스트휴머니즘, 혐오, 생태학, 기후위기 등은 모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담론입니다. 문학은 이러한 담론을 인물과 사건에 녹여 독자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청소년문학은 동화보다 이러한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분량이 좀 더 확보되어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독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어휘와 구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소설을 읽으면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담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과 이러한 난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하는 테마 중에 ‘행성과 마주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위기라는 주제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 ‘지구’와 ‘행성’을 구별하여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구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자본의 힘, 역사 등이 혼재된, 인간의 시선이 개입되어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반면 ‘행성’은 이것과 구별되는 물리적, 우주적 공간에 존재하는 실제 지구입니다. 문제는 근대인인 우리는 이미 ‘지구’ 개념에 노출되어 있어 ‘행성’으로 지구를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한 SF 문학을 읽으면 인간의 관점을 경유하여 ‘행성’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문학에서도 지구와 행성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SF 작품이 꽤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라 불리는 작품이 청소년문학 장르에서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후 위기 담론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선란 작가의 『이끼숲』은 지구 멸망 이후 지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에서 왜 인류가 지상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지하로 들어가야 했는지, 그 삶은 현재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살피며,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해야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청소년문학 속 담론은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며 미래를 살아야 할 청소년 주체에게는 당사자성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문학에는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다양한 테마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청소년문학은 어른이 읽어도 좋은 문학입니다. 일반문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소년문학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멋진 청소년문학을 접한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에 깊이 빠질 것입니다. 더불어, 책장을 덮으며 이태준의 동화 「엄마 마중」에 등장했던 세 번째 차장처럼 나는 청소년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401호 아저씨의 선행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경식**

나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후유증으로 배뇨장애가 생겨 스스로 소변을 누지 못한다. 이에 호스(Poly)를 방광에 삽입해 지내는데, 최근 요로감염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몸에 고열이 나는 상황이 빈번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봤으나,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다. 결국 서울에 살고 있던 작은누나에게 사정을 부탁하여 진료예약을 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다. 콜택시를 호출한 뒤 30분 정도 이동한 다음, 기차역에서 다시 3시간 가량 가야 한다.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이마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들기에, 좀처럼 장거리 외출은 피해 온 나에게 이는 너무 고역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당도했다. 입원과 함께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검출되었다. 악성 균이지만 몸에 별다른 이상을 일으키지 않아 균이 독한 항생제를 맞아가며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건강관

리를 잘 하면 된다고 해서 사흘 만에 퇴원했고, 곧바로 집에 가려고 하자 누나는 아쉬워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 집에 한 번도 못 와봤잖아. 힘들게 올라왔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데 구경도 가고, 하룻밤 자고 내려가.”

누나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찾아간 적이 없어 섭섭했을 것이다. 검사받느라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어머니와 나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계속된 누나의 협박(?)과 회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누나가 사는 곳은 승강기가 없는 빌라이다. 매형이 일찍 퇴근하여 도와준다고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도착할 즈음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러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해가 기울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점 추워졌다. 길에서 무작정 매형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가

파른 계단을 오르려고 자세를 취하자 누나가 만류하며 말했다.

“엄마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관절도 안 좋잖아. 내가 업을 테니까 저리 비켜봐!”

어머니와 누나는 서로 나를 업으려고 옥신각신 하였다. 이럴 때면 장애를 가진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한 가득이다. 바로 그때, 한 중년의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고, 선의로 도움주려다가 혹시나 잘못하여 서로 다칠 수도 있어 정중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기 빌라 4층 401호에 살아요. 혹시 몇 호에 사세요?”

“301호에 살고 있어요.”

누나는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 아저씨와 마주친 기억이 없는지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았다.

“저는 이곳에 산지가 10년 되었어요. 이웃인데 도우며 살아야죠!”

아저씨는 호방하게 웃더니 바지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하였다.

“너 지금 집에 있냐? 그럼 아래층으로 빨리 내려와라!”

잠시 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서 내려왔다. 그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는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제 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아저씨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손가락으로

로 가리키며 붙잡을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한손은 이쪽 바퀴부분을 잡고 한손은 발판 쪽을 꼭 잡아라!”

아저씨와 청년은 휠체어를 양손으로 붙잡고는 번쩍 들어서 좁고 가파른 계단을 하나씩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한겨울인데도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윗도리가 축축하게 젖었다. 2층에 도착하자 아저씨와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휠체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게 물었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계단을 올라 드디어 3층에 도착했다. 휠체어를 바닥에 살포시 내려주며 집 안까지 휠체어를 밀어주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사양하였다.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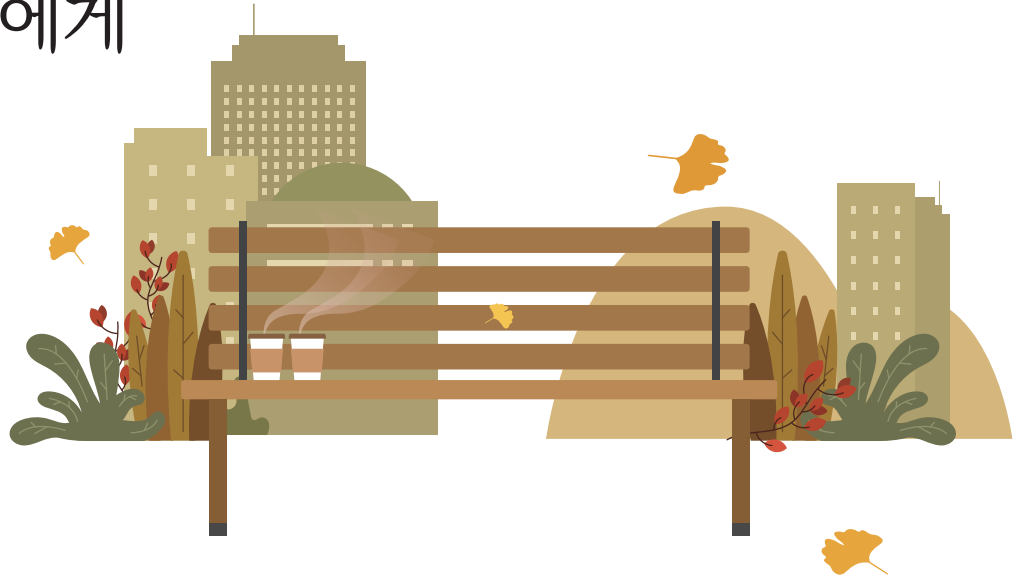
“별말씀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저씨와 아들은 팔소매로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며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가 아름다웠다. 두 사람 덕분에 누나 집에서 하룻밤을 편히 지낼 수 있었고, 서울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시선을 회피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아직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다. 401호 아저씨와 청년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추운 날씨에 매형이 올 때까지 떨면서 기다리거나, 혹은 누나가 나를 업고 가파른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야했을 것이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던 두 분의 땀방울이 지금도 눈에 선명하다. 곤경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부자를 생각하면, 따뜻한 이웃들이 이렇게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데워진다.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독서편지 사랑하는 아빠에게

글 _ 청주미평여자학교 이00



아빠 안녕. 독서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이번에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책을 읽었어. 이 책을 읽고 난 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처음 책 표지를 봤을 때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읽고 나서 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생각도 들었어.

이 책에서 그린란드는 추운 곳이라 '나무가 없는 나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나라'라고 소개되었어. 그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이동할 때 모두가 손을 잡고 다니는 그린란드 사람들 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라고 묻는 문장을 읽으면서는 반성도 하게 됐고, 감사함도 느꼈어.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연함에 숨겨져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후회도 있었어. 무언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잘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있는 나라에 태어나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늘 더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 이 생각들을 아빠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주고 싶었어. 아빠에게 이 편지가 닿을 순 없겠지만 꼭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글을 적을게.

아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꼭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 책 속에 나오는 없는 나라들은

눈, 바다, 강, 나무, 갯벌, 밤, 자국 화폐, 공항, 열차 등 내 곁에는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 없어. 그래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 없는 것들을 극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아빠가 없지만 꼭 이겨내고 극복해서 좋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게.

아빠가 내 곁을 떠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잘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어.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니 용기를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나도 없음을 극복해 볼게.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꼭 응원해 줘!

없는 나라의 사진도 많이 실려 있어서 책을 읽기가 더 쉬웠어. 예쁜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니 아빠와 이렇게 예쁜 곳들을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속상했고, 미안하기도 했어.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진 못했잖아. 아빠가 떠나고 난 후에도 여행을 자주 가진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앉아서라도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 좋았어. 다른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또 다른 나라가 궁금해지기도 했어. 조금 더 크면 아빠 대신 내가 엄마를 데리고 책 속에 소개된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곳을 다녀올게, 알았지?

우리나라에는 눈이 있어서 아빠랑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바다가 있어서 아빠랑 낚시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 외에도 좋았던 추억들이 더 많은데, 나중에 만나면 온종일 말해줄게. 이 책 한 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았다는 게





신기해. 그리고 감사해. 만약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당연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책갈피라는 이 공모전의 이름처럼 책 덕분에 인생의 갈피를 제대로 잡게 된 것 같아.

이 책의 저자가 왜 ‘없는 나라’라는 주제로 이 책을 썼는지 알아? 우리가 늘 ‘있음’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서 ‘없음’도 알려주고 싶었다. 이 모습을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당연함에 묻혀서 다른 한 곳은 소홀해지는 게 공감이었어. 아빠가 있는 것도 당연했는데 나도 동전의 한 면만 봤나 봐. 지금 후회해도 달라질 것 없다는 건 알지만 이제부터라도 동전의 양쪽 면을 다 바라보고,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 볼게. 아빠 나에

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 좋은 세상에서 헛되이 살지 않고 좋은 어른이 될게. 아빠에게 못한 효도, 엄마에게 가득할 테니 아빠 있는 동안 내가 못해준 것들 다 용서해 주고 이해해줘.

앞으로 더 자주, 좋은 곳들 많이 알아봐서 아빠 보러 갈 때 다 이야기할게. 이렇게 긴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빠 있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랄게. 아빠, 사랑해♥

-‘있음’에 감사하고, ‘없음’을 극복하는 이00 드림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는 어떤 책?
세계관을 넓혀주는 친절한 지리 이야기

어릴 적 부루마블 게임 해 본 친구들 많죠? 그 보드게임을 하면서 세계여행에 대한 꿈도 키우고, 각 나라의 도시 이름도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 도시 이름 말고도 더 알고 있는 정보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관광지나 전통음식처럼 이미 존재하거나,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없는’ 부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각 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연결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지리 교과서입니다. ‘없다’는 사실이 꼭 결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서 더 잘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더 발전하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세계지도를 펼쳐 참고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역량 함양과 동시에 세계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은주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사회를 바꾸는 일임을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서교사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 좋아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뿐’. 그러기에 오늘도 사회를 바꿀 나날 학생들에게 책과의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독서가 어려운 그대를 위한, 독서습관 만들기 6단계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고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돕는 멋진 활동이지만,
숏폼과 같이 짙막한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 시대에서는
긴 호흡을 가진 책 읽기 활동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들을 위한 ‘독서습관 만들기 6단계’입니다.



1단계

나에게 맞는 독서 방식 찾기

책은 꼭 책상 앞에서, 눈으로만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독서는 장소와 읽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채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읽는 묵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소리를 내어 읽어보는 음독은 어떨까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혹은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가 좋은지, 또는 나무와 햇살을 만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실외공간은 어떤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어보고 나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더불어 책의 형태도 꼭 종이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블릿PC, 전자잉크를 활용한 전자책, 오디오북 제공 어플리케이션 등 매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더불어 음악을 틀어보거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책을 읽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하거나 빼면서 최적의 독서방식을 세팅해볼 수 있습니다.



2단계

'To-Be-Read' 리스트 만들기

TBR, 즉 'To Be Read'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읽고 싶은 책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은 독서활동의 멋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면 가장 최신에 나온 도서, 독자들이 많이 선택한 도서 등이 매대와 홍보물을 통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직접 살펴보고 표지 이미지나 타이틀, 목차 등에서 흥미를 느꼈다면 메모를 해두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도서를 체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단계

'하루 15분 독서'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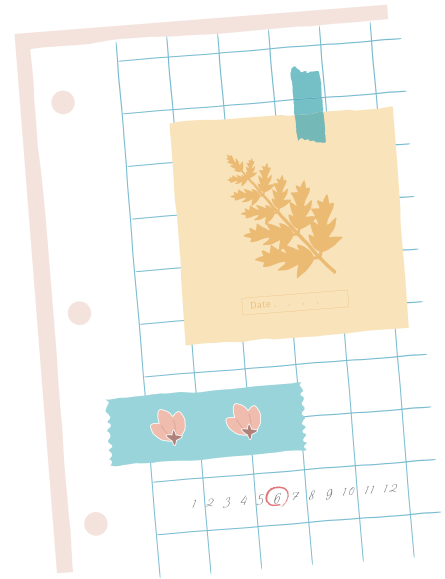


책은 꼭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읽어야만 잘 하는 독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읽더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읽는 것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아직 책이 무겁고 어렵게만 다가온다면, '하루 15분 독서'를 먼저 시작해볼길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혹은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에 매일 15분씩만 꾸준히 책을 읽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5분으로 시작한 독서가, 20분, 25분, 30분씩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 1시간 썩 끊김 없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겁니다.

4단계

'북 다이어리'로 독서 기록하기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면, 일지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수첩을 한 권 만드세요. 책을 읽고 난 후 간단한 감상평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문장들도 필사해보는 거죠.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와 전혀 다름이 없어요. 스티커나 그림 등으로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독서활동과 성장을 기록하는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5단계

친구와 '북 클럽' 만들기

독서는 혼자서만 하는 활동이라고요? 전혀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도 있다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북 클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멤버들이 돌아가며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선정하고,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감상을 교환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활동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죠.

6단계

SNS를 활용한 감상평 공유

앞서 권했던 4단계 '북 다이어리' 쓰기 활동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어떤 매체도 좋습니다. 오늘 읽은 책을 짧막하게 소개하고 리뷰를 덧붙여보세요. 해시태그를 활용한다면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겠죠? 운이 좋다면 책을 집필한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지도 모르고요!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감상평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펼쳐진 '공감'과 '연대'의 이야기 어렵지 않아요, 모두의 자유, 무장애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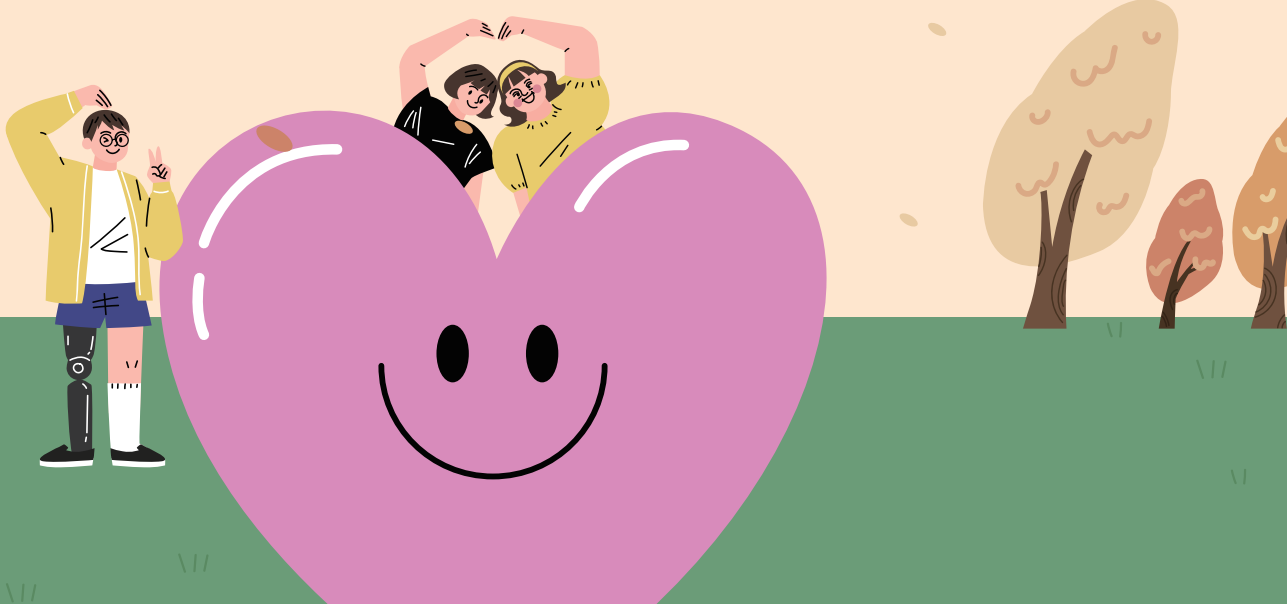
지난 9월 12일, 함양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청소년 장애공감 콘서트'가 함양학생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렵지 않아요, 모두의 자유, 무장애 세상'이라는 주제로, 함양중학교와 함양여자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총 250여 명이 함께 모여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희망이룸'의 아름다운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연주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운 화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함양연꽃의집'에서는 '우리는 무장애조사단입니다'라는 주제로 베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와 무장애 여행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공연기획자 천다혜님의 열정 넘치는 벨리댄스 공연은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빛을 발했던 그녀의 에너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무장애 여행 기획자 김태오님의 강연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넘어지다, 넘어서다'라는 주제로 장애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청소년들에게 무장애 세상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공감 퀴즈도 진행되어 즐거움과 배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판타스틱 듀오' 김범수 편이 우승자인 김다미님의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함양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장애는 불편이지 불행이 아니다”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양군 교육지원청과 ㈜아름다운동행, 그리고 함양연꽃의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편, 저희 교보교육재단이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함양연꽃의집은 무장애 환경 조사와 무장애 여행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며, 재단의 ‘우리동네 무장애지도’ 사이트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무장애 여행과 열린 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음두드림 2024년 2학기 작품발표회 개최

9월 10일, 재단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20주 간 진행했던 '2024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마음두드림(Do Dream)'의 작품 발표회 '비상飛上 : 꿈을 키워 온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를 개최했습니다.

'마음두드림(Do Dream)'은 성찰적 주제에 대한 연극과 토론 등 예술활동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연구자, 연기 지도자 등 전문가들이 교사로 참여하며, 지난 2020년 안양소년원 정규 학기 교육과정으로 시행하여 올해 까지 약 5년 간 운영 중입니다.

이날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강당에서는 교사진과 청소년이 함께 내용을 각색한 연극무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처, 뉘우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연이 펼쳐졌으며 '엄마가 딸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과 같은 노래를 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학생들이 모두가 스스로의 앞날을 응원하고 복돋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 참여

재단은 지난 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구성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교보교육재단을 비롯해 국내 디지털, 통신, 교통, 금융, 교육, 유통, 가전 분야 19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신규 기술 및 서비스의 테스트 베드, 대국민 디지털 문화 캠페인 추진 등의 '2024년 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 ESG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강화, 환경에 대한 책임, 디지털 포용성 제고 등에 대한 '디지털 ESG 협력 실천 공동 선언'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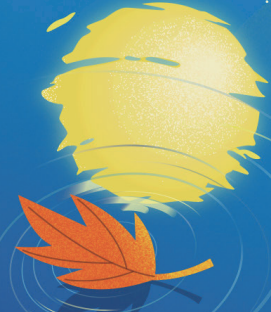
재단은 디지털 윤리가족 캠프 '숲e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기능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ESG 활동의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데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광화문글판 가을 편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2024 광화문글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



운동주 | 자화상

인생 한 문장, 광화문 글판

광화문글판은 교보생명 사옥에 부착되어 있는 시민을 위한 글판입니다.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날 용기를 '광화문글판'이 벗님들께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가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